

쿠바의 관광산업과 히네테리스모: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접합*

주종택**

단독/순천향대학교

Joo, Jong-Taick (2014) "Tourism and *Jineterismo* in Cuba: The Conjunction of Capitalism and Socialism"

ABSTRACT

With the development of tourism in Cuba, the number of *jineteros* working for foreign tourists has increased rapidly. *Jineterismo* is an economic strategy inevitably chosen by the poor Cubans who are suffering from persistent low wages and lack of employment. In the Cuban society in which the majority of Cubans are faced with severe economic difficulties, the increase of *jineteros* is having a very significant impact on the socio-economic changes. In particular, *jineterismo* has provided new opportunities for mulattoes and blacks who have endured social discrimination in Cuba. Although still limited, the transformation of some *jineteros* into small-scale, self-employed workers has also been confirmed. In this regard, *jineterismo* can facilitate the conjunction of socialism and capitalism in the closed socialist economy by helping in the emergence of entrepreneurs or innovators. In terms of socio-cultural aspects, *jineterismo*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shaping values and a new worldview, which differ from socialist ideology. Of course, the economic activities of *jineteros* are illegal in principle, and frequently their behaviors may threaten the existing social order in Cuba. But, it cannot be denied that *jineteros* take the role of cultural brokers between foreign tourists and Cubans.

Key Words: Cuba, *jineterismo*, *jineteros*, tourism, socialism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NRF-2013S1A5A2A01015921).

** Jong-Taick Joo is professor of International Cultural Studies at Soonchunhyang University, Korea (Email: jtjoo@sch.ac.kr).

서론

20세기 후반에 들어서서 쿠바에서는 관광산업이 주목을 받으면서 사회변화의 속도가 빨라졌다. 관광 분야가 발전하면서 관광객이 필요로 하는 상품과 용역을 제공하고 돈을 버는 히네테로(jinetero)들도 따라서 급증하였다. 여기서는 쿠바의 관광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등장한 히네테로의 활동을 파악하여, 현대 쿠바의 경제와 사회·문화 영역에서의 이들의 의미와 역할, 사회적 영향이 무엇인지를 분석한다.

최근에 쿠바의 관광산업이 활성화되면서 사회경제적으로 다양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쿠바의 관광산업이 아무런 문제없이 성장하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쿠바의 적극적인 외국인 관광객 유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봉쇄정책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쿠바계 미국인들의 쿠바 여행과 송금 제한을 철폐하였지만 아직도 미국인들의 개별적인 여행을 규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쿠바는 달러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 2004년부터 달러를 대신하는 새로운 태환 페소화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달러를 기준으로 하는 태환 페소(CUC: pesos convertibles)와 일반 페소(CUP: moneda nacional)의 이중경제 구조가 형성되었다(2014년 8월 현재 1CUC = 26.5CUP). 호텔, 택시, 대부분의 식당, 일부의 상점, 그리고 기념품 가게 등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업종은 태환 페소를 사용한다. 경우에 따라 내외국인이 모두 사용하는 장소는 태환 페소와 일반 페소를 모두 받기도 한다. 예를 들어 박물관이나 오락시설에서는 외국인에게는 태환 페소를 요구하지만, 쿠바인에게는 일반 페소의 사용을 허용한다. 그 외에 쿠바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식당이나 상점은 일반 페소를 받는다.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이들에게 팔기 위한 물건을 취급하는 상점들이 많아졌다. 그래서 관광산업의 성장으로 태환 페소의 사용이 흔해지면서 비싸고 품질이 좋은 물건을 사려면 이제는 태환 페소가 있어야 되는 경우가 보편적이다. 그렇지만 관광분야에 종사하거나 해외에 사는 친척이 보내주는 송금이 있는 가구를 제외한 쿠바인들은 태환 페소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McKenna 2011, 285).

이렇게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태환 페소와 쿠바인들이 사용하는 일반 페소로 나뉘면서 태환 페소를 벌 수 없는 대다수의 쿠바인들은 경제적 상황이 더욱 나빠졌다. 일반 페소화를 급료로 받는 쿠바인들의 월 평균 소득은 약 312페소에

불과하며(Ritter 2005, 352), 달러로는 \$12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생활하기가 곤란한 형편이다. 물론 최근에는 일부의 전문직 분야에서 임금이 다소 상승하기는 했지만 아직도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가에서 약간의 식량과 생활필수품을 무상으로 제공하지만, 생활하는 데 충분하지 않아서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생필품을 따로 구입해야 한다(Domínguez 2009, 84). 그리고 일부의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태환페소나 달러화를 벌어야 하는 실정이며, 게다가 무상으로 제공되던 의료 서비스의 경우에도 이제는 달러를 소유해야만 보다 나은 치료를 받을 기회가 주어지는 실정이다(Brotherton 2008, 267). 이와 더불어 일자리 부족도 심각한 문제이다. 1990년대 중반에 실업이나 불완전 취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약 40%에 이르렀다. 그 후에는 약 30%의 사람들이 경제적 활동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Pertierra 2008, 758). 이런 문제로 달러를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일부의 쿠바인들은 미국으로 이주한 가족이나 친척들로부터 송금 수입을 얻고 있지만, 상당수는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없다. 특히 쿠바를 벗어나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쿠바인들의 대부분이 백인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쿠바의 흑인들은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운 형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관광 관련 업종에서도 자영업이 허용되었다고 하지만 허가를 얻기가 쉽지 않고, 또한 경제적 여유가 있고 비교적 좋은 지역에 주거하고 있어야 관광업에 종사하기가 유리한 실정이다(Safa 2009, 45). 게다가 세금도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여러 조건이 갖춰지지 못한 가난한 흑인들은 대단히 불리한 조건에 놓이게 되었다. 이처럼 어려움에 빠진 일부의 흑인들은 스스로의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돈을 버는 히네테리슴(jineterismo)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쿠바의 관광산업이 가져다주는 영향은 다양한 경제적 기회의 확산과 새로운 문화의 유입 등 매우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그중에서도 히네테리슴의 확산은 쿠바사회의 변화된 모습을 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히네테리슴은 외국에서 온 관광객을 대상으로 성(性)이나 상품, 용역 등을 제공하고 달러나 음식, 유흥활동, 혹은 원하는 물품을 받는 것을 일컫는데, 원래는 쿠바 혁명 이후에 자신의 관계를 이용하여 부족한 물품이나 용역을 얻는 것을 의미했었다(Rundle 2001, 2). 그런데, 쿠바 혁명 이후에 한동안 자취를 감추었던 히네테리슴도가 1990년대에 젊은이들의 생존수단으로 재등장하였다(Facio et al. 2004, 129; Fernandes 2003, 360). 이런 활동에 참여하는 남성은 히네테로(jinetero), 여성은

히네테라(jinetera)라고 하는데, 각각 하는 일이 조금씩 차이가 난다. 여성들은 매춘 등 성과 관련된 일을 많이 하는 반면에, 남성들은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물품 판매나 관광 안내, 식당이나 숙소, 상점의 소개 같은 일을 주로 한다. 히네테로들의 수입이 쿠바인들의 급료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히네테리스모에 참여하고 있다. 물론 이들이 활동하는 영역이나 장소, 시간에 따라서 소득 수준은 모두 다르다. 그러므로 이들의 등장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쿠바사회의 현실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

쿠바 사회와 히네테리스모

히네테리스모의 의미와 성격

히네테리스모가 쿠바의 관광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대단히 미약하다. 쿠바 정부의 입장에서는 히네테로들의 활동이 합법적이지는 않지만 이들이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경제활동이 유익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것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학자들의 입장에서는 히네테로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숨기려하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수행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런 이유로 히네테리스모에 관한 연구는 대단히 미진하고, 또 몇몇의 연구에서도 피상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한계를 갖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히네테리스모에 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먼저 히네테리스모를 부정적이고 바람직하지 않으며, 범죄와 관련이 있는 불법적 경제행위로 인식하는 것이다(Henken 2005; Ritter 2005, 344-347; Rundle 2001; Vallant 2001, 243). 히네테로들이 불법적으로 매춘을 알선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관광객들을 속이는 일이 많다는 점을 주로 부각시킨다. 한편으로는 쿠바 사회주의의 좋지 않은 문제가 히네테리스모라는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이것을 사회병리적 현상으로 설명하기도 하는데(Cabezas 1998; Kempadoo 1999), 사회주의 정부에서 생계를 해결하기에 충분한 소득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로 히네테로가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와 더불어 관광산업의 성장으로 히네테로들의 활동이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이런 현상이 사회갈등과 긴장을

조성하는 원인이 된다고 주장하는 연구도 있다(Sanchez and Adams 2008, 35). 즉 히네테리슴오가 발생하거나 존재하는 이유를 쿠바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문제라는 판단에서, 어느 정도 비판적인 입장에서 히네테리슴오에 관한 관심을 두고 있다. 쿠바의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쿠바인들의 생계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사회적 모순이나 갈등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히네테리슴오가 더욱 확대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여성인 히네테라들의 활동에 많은 관심을 두는 연구들이 있다. 여기서는 히네테라들의 매춘행위의 형태와 원인, 그리고 정부의 대응에 주요한 초점이 모여 있다(Elizalde 1996; Fusco 1998; O'Connell 1996; Strout 1996; Trumbull 2001). 보다 구체적으로 히네테라들의 종족성에 관한 문제나(Fernandez 1996; Pope 2005), 이들의 경제적 전략과 관광객과의 관계에 관심을 갖는 연구도 있다(Cabezas 1998; 2004; 2006). 히네테라들의 교육 수준이 높고 전문직 여성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경제적 행위의 특징과 문제가 주요한 관심사이다. 특히 매춘에 대한 규제가 많은 논란을 일으키는 서구사회의 관점에서 사회주의 국가인 쿠바의 매춘행위는 상당히 흥미로운 것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는 그나마 어느 정도 실시되었다.

히네테리슴오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갖는다. 첫째, 대부분의 연구들이 부정적인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한다. 물론 쿠바가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하면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산업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과정에서 내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불평등한 관계가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이런 문제로 인해 자연스럽게 히네테리슴오가 등장하였다. 다시 말해 사회주의 경제구조가 쿠바인들의 생계를 완전하게 지원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달러 등 외화를 벌 수 있는 분야에 뛰어들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히네테리슴오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사회적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네테리슴오가 쿠바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만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급여수준이 매우 낮은 쿠바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진입이 그다지 어렵지 않은 히네테리슴오는 가구와 사회의 유지에 무시하지 못할 기여를 한다. 또한 히네테리슴오는 사회주의와는 상이한 경제활동을 쿠바에 유입시켜서 쿠바인들로 하여금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경제체제에 적응하게 만드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즉 가구와 사회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시각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히네테리슴오의 역할을 분석해

야 한다.

다음으로 많은 연구가 경제적 측면에 지나치게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물론 거의 모든 히네테로들이 부족한 경제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국가에서 받는 급료보다 적게는 서너 배, 많게는 열배 혹은 그 이상의 소득을 얻을 수 있는 히네테로들의 경제적 전략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히네테리스모의 존재로 일반 쿠바인들도 외국에서 온 관광객과 접할 기회가 자주 발생하면서 사회문화적으로 쿠바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즉 이전에 접해보지 못했던 가치관과 이념, 생활양식, 문화요소를 받아들일게 된 것이다. 한편 이런 문화교류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어서 외국에서 온 관광객들도 쿠바 정부에서 제공하는 일방적인 정보뿐 아니라, 히네테로들을 통해서 훨씬 다양한 쿠바의 문화와 쿠바인들의 실생활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사회문화적 상호작용은 향후의 쿠바 사회의 변화에 상당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변화하는 히네테리스모

현재까지 히네테리스모 중에서 히네테라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많았던 반면에 히네테로들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히네테로가 수도 훨씬 많고 경제적, 사회문화적으로 훨씬 폭넓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들의 활동에 보다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히네테로들을 일정한 틀에 가두어 일반적으로 설명하려던 방식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히네테로들이 외국에서 온 관광객들을 유인하여 싼 물건을 비싸게 팔고 가짜 물건도 파는 동시에 화폐의 종류를 속이는 등, 관광객들을 상대로 부정행 방법으로 돈을 번다고 알려져 있다. 물론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로 히네테로들은 관광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쿠바 사회에서 관광객에게 필요한 정보와 상품을 제공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필요한 서비스를 관광객들에게 제공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들의 활동범위는 항상 일정한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 그리고 정부의 관광정책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히네테로들이 그동안 스스로 배우고 익혔던 자본주의적 경제활동을 활용하여 새로운 경제 분야의 주체가 되기도 한다. 이런 의미에서 히네테로들의 행위를 상세하게 분석하여 이들의 내적 다양성과 차이점을 발견하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들의 활동의 폭이 달라지는 것을 알아내는 것이 히네테리스모의 속성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다음으로 히네테로의 의미와 역할을 경제적 영역에 한정시킬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영역까지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거의 모든 히네테로들이 높은 실업율과 낮은 급료를 해결하기 위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경제적 전략은 매우 두드러지게 보인다고 하겠다. 그렇지만 이제는 이들의 행위가 사회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사회문화적 상호작용을 초래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히네테리스모를 단지 경제적 전략의 하나로 인식하는 것은 히네테로들의 역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다. 히네테로들과 관련된 가치관과 이념, 쿠바 사회와 개인의 문화변화를 포함하는 상징적, 문화적 구조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외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해가 갈수록 급증하면서 관광객들이 요구하는 것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 히네테로들은 관광객들에게 일정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뿐 아니라,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고 또 전달하는 역할도 동시에 수행한다. 이런 점에서 히네테로들의 사회문화적 영향력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으며 이것이 쿠바 사회의 변화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매우 큰 의의가 있을 것이다.

연구의 방법과 조사지

쿠바에서 히네테리스모의 실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려면 외국의 관광객들이 많으며 히네테로들의 활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지역이 충실한 조사를 실시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쿠바의 트리니닷(Trinidad)은 히네테리스모를 이해하는 데 가장 이상적인 지역이다. 트리니닷은 쿠바에서도 가장 잘 보존된 식민도시로서 수도인 아바나(Havana)에서 남동쪽으로 334km 떨어져 있으며, 2008년 현재 인구는 74,677명이다. 트리니닷은 아바나나 다른 쿠바의 대도시와는 달리 흑인 거주지역의 일부도 외국의 관광객들이 몰리는 도시의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흑인들이 관광과 관련된 부문에 접근하기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용이하여 히네테로들의 활동이 활발하다. 게다가 아바나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소도시라서 쿠바의 다른 대도시

에 비해 히네테로들에 대한 관계기관의 통제도 다소 느슨한 편이다. 최근에는 사진관, 이발소, 옷가게, 철물점, 액세서리가게, 구두나 가방을 파는 상점 등이 새롭게 생겼다. 피자, 햄버거, 핫도그를 만들어 파는 식당도 많이 생겼다. 길거리에서 야채, 빵, 고기 등을 파는 행상도 소규모이지만 많다. 이런 형태의 소규모 자영업은 많은 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생계를 해결하는 데에는 유익하다. 이렇게 되면서 히네테로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거리도 자연히 증가한다.

현대 쿠바사회의 히네테리스모의 다양하고 역동적인 기능과 유형에 관계되는 필수적이고 중요한 일차적 자료를 획득하기 위해서 현지조사와 참여관찰을 실시하였다. 현지조사에서는 질적, 양적 조사방법을 활용하여 히네테로의 인구구성 및 특징에 관한 각종 중요한 문헌자료, 통계자료를 비롯하여 이들이 실제로 관광객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사람들의 행위와 이념, 파급효과에 관한 자료를 수집했다. 특별히 집중적 공식·비공식 면접을 활용하면서 쿠바의 관광정책과 히네테리스모에 대한 정부의 반응, 히네테리스모의 유형, 의미, 결과를 파헤치기 위해 히네테리스모에 관한 쿠바 사람들의 행위와 담론을 조사했다. 면접과 참여관찰을 보완하고, 사람들의 견해가 주어진 사회의 사회경제적 조건과 제도적, 문화적 규범에 비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 질문지를 활용하여 비교분석하였다. 트리니다트를 방문하여 2006년 여름과 2008년 여름에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히네테로들과 관광 관련 업소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연구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본격적인 자료 수집을 위한 현지조사는 2013년 7월과 8월 사이에 실시되었다.

쿠바의 관광산업과 경제활동의 변화

관광산업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분야가 자영업이다. 자영업자들은 쿠바의 사회주의 경제가 관광객에게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각종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쿠바의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모든 사람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쿠바 정부는 국민들에게 자영업(cuenta propia)을 허용하게 되었다. 1993년 법령 141조에 의해 백 개 이상의 자영업이 합법화되어 자영업자들(cuentapropistas)이 다양한 분야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미용실, 구두수선, 점술, 개인 식당(*paladares*), 민박(*casas particulares*) 등 다양한 업종에서 쿠바인들이 정부의 허가를 얻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Colantonio 2004, 30; Melián 2006, 47; Powell 2008, 181). 특히 개인 식당이 1993년 이후에 빠르게 늘고 있다. 이런 식당들은 관광객들이 몰리는 지역에서 한 끼에 10-15 달러를 받고 바다가재 등의 식사를 제공해서 25-35 달러를 받는 국영 식당에 비해 경쟁력이 있다. 개인 식당의 수가 늘어나자 국영 식당들도 음식의 품질과 서비스를 높이기 시작했다. 게다가 정부에서 개인 식당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면서 2000년 이후에는 오히려 개인 식당의 수가 줄어들었다. 민박의 경우에는 다소 사정이 다르다. 민박은 이미 1988년의 법령으로 허용되어 한 집에서 두 개의 방까지 관광객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당시에는 외국에서 오는 관광객이 많지 않아서 이들에 대한 세부 규정을 제대로 만들지 않았다(Henken 2001, 372). 그 후에는 민박을 하는 집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런 과정에서 1990년대 초부터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줄어들었고, 반면에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는 증가하였다(Espina Prieto 2011, 14). 1995년 6월에는 그동안 허용되지 않았던 대학 졸업생들의 자영업 진출도 허용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많은 대학 졸업생들이 국영 부문을 떠나서 자영업자가 되었다. 당연히 대학에 등록하는 학생들의 수도 서서히 감소하고 있다. 대학 졸업 후에 일자리도 구하기 어렵고, 설사 공식 부문에서 일을 해도 많은 수입을 보장 받지 못하는 실정에서 몇 년씩 대학에서 공부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현재 약 30%의 쿠바인들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여성들의 경우에는 실업의 문제가 더욱 심각하기 때문에 자영업에 대한 관심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Pertierra 2008, 758).

비공식 부문의 경제영역이 조금씩 활성화되면서 물가가 상승하기 시작했다. 자연스럽게 일반 폐소로 정부로부터 급료를 받는 사람들은 실질 임금의 하락으로 고통을 받게 되었다. 자영업의 확산으로 음식점 혹은 호텔의 종업원이나 택시 운전사가 전문직 종사자들보다 훨씬 많은 소득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교사, 의사, 기술자 등 전문직의 인력이 관광 부문의 자영업에 취업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López Segre 2011, 8). 예를 들어 1989년에는 대학교수들이 가장 많은 급료를 받았고 교사들도 적절한 보수를 받았다. 그러나 그 후에는 소규모 자작농, 자영업자, 농산물 시장이나 암시장의 상인들이 가장 많은 수입을 올리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래서 전문직 종사자들 중의 일부는

공적 지위를 포기하고 해외투자자들과 손을 잡아 사업을 하거나 관광분야에 뛰어들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전보다 훨씬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 (Mesa-Lago and Vidal-Alejandre 2010, 700). 물론 모든 장소에서 자영업이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관광객이 많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유리하다 (Safa 2009, 45). 최근에는 은퇴를 한 노인들도 자영업에 뛰어드는 경향이 있다. 쿠바에서는 남자는 60세 여자는 55세 등 비교적 이른 나이에 은퇴를 하기 때문에 은퇴한 사람들이 소득을 올리기 위해 자영업에 참여한다(Facio et al. 2004, 137). 예를 들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닭고기나 계란, 그 밖의 음식을 만들어서 도시로 가서 파는 경우가 많다.

자영업을 허용하려는 쿠바 정부의 정책은 최근에도 멈추지 않고 있다. 특히 경제적 여건이 악화되어 국가부문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실업률이 상승하면서 자영업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2010년 9월에 쿠바 정부는 국가부문의 일자리 약 100만 개를 없애면서 181개의 새로운 자영업을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이어서 2012년 초에는 약 38만 명의 사람들이 자영업을 위한 허가를 취득했다. 새로운 업종을 늘리는 동시에 기존의 업종을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보였다. 예를 들면 기존에는 개인 식당은 12석의 좌석만 인정되었지만, 이제는 50석까지 늘릴 수 있다. 2011년 8월 쿠바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자영업 허가를 받은 사람들 중에 67%는 실업이었거나 그동안 불법으로 자영업을 운영했고, 단지 17%의 사람들만 국가에 의해 고용되었거나 은퇴한 사람들이었다(Pujol 2013, 6; Ross and Fernández Mayo 2002, 277). 쿠바인들이 자영업을 선호하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에 의해 조정되고 통제되는 사회주의 경제제도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일이다. 즉, 일하는 시간을 스스로 정할 수 있고, 자신들의 노력에 따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정부에서 제공하는 일자리보다 더 많은 수입을 기대할 수 있어서 좋다는 것이다. 오늘날 배급으로 주어지는 식품은 약 일주일 동안 소비할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 3주 이상은 비싼 가격을 치르고 농민들이 직접 판매하는 시장이나 암시장, 혹은 태환 폐소가 통용되는 상점에서 식품을 구입해야 한다(Mesa-Lago 2005, 183). 설상가상으로 정부에서 나오는 배급량은 갈수록 줄어들고, 시장에서 구입해야 하는 생필품 가격은 꾸준히 오르고 있다(Mesa-Lago 2005, 186). 쿠바인들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과정을 ‘resolver’(해결하다), ‘inventar’(만들어내다), 그리고 ‘luchar’(투쟁하다)라는 용어로 표현하는데(Cabezas 2009, 76),

자영업자들의 행위가 이것에 가장 잘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쿠바는 자영업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경제 자유화를 통해 소규모 사업체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 들이고, 정부가 직접 고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줄여 실업 문제를 극복하려 한다. 또 생산성과 생산량을 올려서 수출을 강화하며, 화폐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임금을 올리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소규모 자영업은 25%의 세금을 내지만, 사람들을 고용해서 운영하는 업체들은 50%의 세금을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쿠바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 의하면 약 23%의 사람들이 이미 자영업을 하고 있으며, 34%는 앞으로 운영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43%의 사람들은 자원과 정보의 부족, 불확실한 정치경제적 상황 때문에 자영업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했다(Orozco and Hansing 2011, 304). 아직까지는 자영업의 형태가 다양하지 못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음식을 팔거나, 옷을 수선하고 파는 행위, CD나 DVD 판매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실정이다. 그밖에 수공예품 판매나 민박, 개인 식당, 언어 교습, 운수업 등도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업종이다. 자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목돈이 필요한데, 약 62%의 응답자들은 해외에 거주하는 친구나 가족의 송금에 의존하고, 27%만 자신이 소유한 재산을 이용했다고 말했다(Orozco and Hansing 2011, 305). 자영업자들이 한 달에 버는 수입은 그다지 많지 않은데 그나마 업종에 따라 차이가 심하다. 길거리에서 음식을 파는 사람들은 한 달에 약 123 달러를 벌고, 미용사들은 60 달러, 옷 판매 수선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95 달러, 민박 운영자들은 1,400 달러, 비디오 대여 사업자들은 40 달러, 수공예품 판매자들은 233 달러, 개인 식당 운영자들은 500 달러 정도를 번다고 답했다(Orozco and Hansing 2011, 306). 물론 이 정도의 수입도 국가로부터 급료를 받는 사람들에 비하면 월등하게 많은 것이다.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서비스나 판매업에 종사하고 혼자서 일을 한다. 조사대상자 중에 62%는 정부의 허가를 받았지만 나머지 38%는 비공식적으로 일을 한다. 또 약 80%가 자신의 집에서 일을 하고, 길거리에서 행상을 하는 사람들은 12%를 차지한다. 이들의 경제활동은 매우 영세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데 그치고, 부를 축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Orozco and Hansing 2011, 307).

자영업자들이 단 기간에 큰돈을 벌지 못하는 이유는 세금이 많고 정부의 통제도 매우 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민박의 경우에도 지역에 따라 한 달에 100 달러에서 250 달러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관광객이 많지 않은

비수기에는 세금을 내기가 벅찬 경우가 많다고 한다. 세금이 수시로 인상되는 것도 자영업자들의 불안을 가중시킨다. 이런 불안정성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체계적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하기가 어렵다. 자영업자들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수입을 그대로 신고하지 않는다. 정부도 이런 점을 고려해서 소득에 비해 매우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Smith 1999, 52-53). 또한 규정을 위반하면 매우 높은 벌금을 부과하는 것도 문제다. 보통 벌금이 쿠바인들이 한 달 급여의 7배 정도에 달한다고 한다. 게다가 자영업자들은 감독하는 정부 관리들이 임의적으로 벌금을 부과하거나, 그들의 권리를 남용하여 피해를 보는 경우가 흔하다고 불평한다(Henken 2001, 375). 이런 까닭으로 자영업자들이 정부의 감시를 피해 불법적으로 자신들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소규모 업체들은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고, 대규모 업체들은 매출을 속이거나 암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비공식적으로 노동자들을 고용한다(Henken 2001, 377). 민박의 예를 보면 보통 주인은 매달 10%의 세금을 내고, 연말에 수입의 40%를 또 세금으로 낸다. 전기, 물, 가스 등의 요금을 고려하면 얻는 수익금이 생각보다는 크지 않다. 그래서 불법으로 방을 더 빌려주거나 투숙객에게 아침식사를 제공해서 돈을 더 벌려고 한다.

한편 국가에 고용된 사람들의 급여가 매우 낮아서 이들이 자영업자들에 대해 불만을 갖는 것도 문제다. 자영업자들이 적은 노력으로도 정부의 관리들보다 월등하게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게 되자 쿠바 정부는 자영업을 규제하는 다양한 방법을 내놓았다. 세금이나 벌금을 올리고 자영업의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Smith 1999, 49). 마지막으로 매출을 받기 어려운 점도 문제다. 이런 까닭으로 21세기에 들어서도 자영업들의 수가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조직을 구성하여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불가능하다. 정부에서는 관리들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자영업자들을 감시한다. 규정을 위반하다가 적발되면 허가가 취소되어 더 이상 자영업에 종사할 수 없다(Smith 1999, 57).

쿠바 정부가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영업을 허용했지만,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이들은 정부의 허가를 받을 여건이 되지 않거나 세금을 낼 여력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다. 최근 들어 이렇게 불법으로 경제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실정이다(McKenna 2011, 289). 물론 쿠바인들이 말하듯이 쿠바에서 완전히

합법적인 경제행위만을 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다(Ritter 2005, 342). 생산활동 뿐 아니라 소비행위에서도 여러 가지의 불법행위들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관광분야에서도 불법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허가 받지 않은 개인 식당, 택시, 민박 등이 많이 존재한다(Ritter 2005, 343). 불법으로 운영하는 민박이나 개인 식당, 그리고 비정상적인 경로로 물건을 파는 행위에 대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식 식당이나 숙박업소, 상점에서 반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쿠바의 불법 경제행위의 사례는 매우 다양하다. 제빵업자가 빵을 만드는 재료를 빼돌리거나 밀가루 등 재료를 적게 쓰고 남겨서 그것으로 몰래 빵을 만들어 시장에 비싼 가격에 팔거나, 또한 국영 가게에서 시가 등 좋은 상품을 빼내서 비싼 가격에 팔기도 하며, 술집에서도 림을 빼내서 다른 곳에 팔기도 한다. 공연장에서는 표를 사지 않은 관람객을 입장시키고 몰래 돈을 받기도 한다. 개인 식당이나 민박집을 감독하는 사람들도 규정을 위반한 주인들에게 돈을 받고 묵인하는 경우도 있다. 개인 식당에서도 원래는 닭고기나 돼지고기 등만 손님에게 제공할 수 있으나 불법적으로 바다가재, 새우, 소고기 등으로 요리를 만든다. 미용실에서도 미용사들이 고객들의 머리를 손질하고 나서 옷돈을 요구하기도 한다(Brotherton 2008, 269; Ritter 2005, 344-347). 더욱이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불법 경제 행위는 훨씬 종류도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 원인은 국가의 재산은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지만, 또한 누구에게나 속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국가의 물품을 훔치는 것은 범죄가 아니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Ritter 2005, 349).

게다가 관광 분야에서는 일반 폐소를 사용하는 쿠바인들의 경제 영역과 태환 폐소를 사용하는 관광객 대상의 경제 영역 사이에는 가격의 차이가 상당해서 이것을 이용해서 암시장을 통해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많다. 즉, 정부에서 싸게 제공하는 물건을 배급받거나 빼돌려서 관광객을 상대로 비싸게 팔면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한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기도 쉽지 않고, 업주들이 내야 할 세금도 과도한 측면이 있어서 사람들이 불법 경제행위를 많이 하게 된다(Ritter 2005, 350). 불법 경제 행위를 하다가 단속에 걸리면 벌금을 내야 하거나 처벌될 수 있다. 물론 뇌물을 주고 단속을 피해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정부에서

모든 쿠바인들에게 쌀, 설탕, 콩, 식용유 등을, 그리고 제한적으로 계란, 고기, 우유, 파스타, 비누, 성냥, 치약 등 일부의 생필품을 매우 저렴하게 제공하지만, 종류가 많지 않고 양도 턱없이 부족하다. 급료 수준도 매우 낮아서, 한 달에 한 번 받은 급료를 일주일 정도 사용하면 돈이 없다고 한다. 식품이나 다른 물건들을 시장이나 태환 폐소를 사용하는 상점에서 구입하려면 급료 이외의 다른 소득이 필요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법 경제행위에 관심을 갖거나 참여하는 것이다. 불법 경제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쿠바 정부는 ‘혁명수호 위원회’(Comités para la Defensa de la Revolución: CDRs)나 각 지역의 감시 위원회에서 이런 활동을 제재하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Ritter 2005, 355). 쿠바인들은 사람들이 생존하기 위해 불법 행위에 가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심지어 경찰도 불법 행위가 그다지 사회질서를 파괴하지 않고 큰 소득을 얻는 것이 아니면 눈을 감아주는 편이다(Trumbull 2001, 368). 자영업자들의 활동의 범위도 점차 넓어지고 있다. 법령의 변경으로 이제는 자영업자들이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고, 자신들이 상품이나 용역을 국영기업에 판매할 수 있다. 연금 혜택도 주어지고 국가나 다른 개인으로부터 공간이나 장비도 빌릴 수 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각 개인이 하나 이상의 허가를 얻는 것도 가능하다(Pujol 2013, 7). 이렇듯 계속해서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이 발표되지만 아직도 이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제도나 법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히네테로의 사회문화적 의미와 영향

히네테로와 쿠바

쿠바인들이 부족한 수입을 보완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첫째, 해외에 거주하는 친척이나 친구로부터 송금을 받는 것이다. 두 번째는 자영업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관광과 관련된 분야에서 일을 해서 태환 폐소를 버는 것인데(Ritter 2005, 352), 히네테로들이 여기에 속한다. 관광산업과 자영업이 성장하면서 이들 업종과 관광객 혹은 고객을 연결해주는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이 등장했다. 히네테라(jinetes)라고 불리는 매춘부들이나, 매춘 알선업자(chulos), 불법 자금을 세탁하는 사람들(maceteros)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Colantonio 2004, 32), 히네테로들도 이들과 마찬가지로 변화하는 쿠바사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다. 히네테로들이 많아지는 것은 앞서서도 언급한 것처럼 쿠바의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으며 임금수준도 매우 낮기 때문이다. 쿠바는 혁명 이후에 모든 국민에게 교육과 의료 혜택을 부여하고 사회보장 연금도 제공했다. 이렇게 해서 국민들의 생활안정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 이렇듯 사회 서비스 부문에서 쿠바는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보다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2008년의 경우를 보면 국내총생산액의 34.7% 그리고 예산의 52.6%를 공적 서비스에 할당하고 있다(Mesa-Lago and Vidal-Alejandro 2010, 699). 그렇지만 이런 사회주의 정부의 노력과 관심에도 불구하고 쿠바 국민들의 생계를 완전히 해결하거나 생활수준을 상승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여기다가 실업이나 불완전 고용이 많아지고, 이중화폐 제도를 통해 실질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일반 폐소로는 구할 수 없는 물건이 많아져 태환 폐소가 있어야 생활이 편리해지기 때문에 현금 수요는 날이 갈수록 많아진다. 트리니닷의 한 히네테로는 자신이 일을 하게 된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현재 쿠바에서는 먹고 살기가 어렵다. 장사나 사업을 해도 버는 돈의 거의 40%를 세금으로 내기 때문에 생활하기 곤란하다. 학력은 중학교만 겨우 졸업했다. 가정형편과 개인 사정으로 인해 학교를 다니기가 어려웠고,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가 부족해서 더 이상 공부를 하지 않았다. 그동안 다양한 직업을 가졌었다. 주로 농장에서 농업노동자로 일을 많이 했다. 토마토 등 계절에 따라 농작물을 따는 일을 돕고 돈을 받았다. 그 후에는 히네테로로 일을 했다. 개인 식당이나 민박을 관광객에게 소개하고 돈을 받았다. 그래서 식당에 손님을 소개시켜 주고 손님 1명당 1CUC를 받는다. 보통 식당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에 모아서 비용을 지급한다. 그밖에 시가 파는 곳을 관광객에게 소개해주고 소개비를 받고, 관광객을 위해 택시나 스쿠버 다이빙 등 다양한 상품을 소개해주고 소개비를 받는다. 한 달 수입은 약 100CUC 정도 된다”(Tranquilino Silva, 33세).

쿠바에서 관광을 위한 시설과 제도가 차곡차곡 개선되고, 외화를 벌기 위한 목적으로 쿠바 정부가 혁명 직후와는 달리 불법 경제행위를 그다지 엄격하게 단속하지 않으면서 히네테로들의 활동범위는 매우 넓어졌다. 이들은 관광객들에게 쿠바에서 생산한 시가나 불법 CD, 그란마(*Granma*) 같은 신문, 수공예품을 팔기도 하고, 식당이나 민박집을 소개시켜주기도 한다. 또한 마리화나 같은

마약, 쿠바 폐소 지폐, 땅콩 등의 음식, 기차표 등의 구입을 알선하기도 한다. 그밖에 살사 춤을 배우는 곳과 관광객을 연결시키기도 하며 매춘부나 남자친구를 소개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히네테로들의 행위는 불법이며 정부에 의해 통제되기 때문에, 이들은 경찰이나 관리들의 눈을 피해서 활동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이 직접 거리에서 관광객들과 접촉하기보다 택시 운전사나 식당 혹은 민박 주인, 그리고 상점 주인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일거리를 찾기도 한다. 흔히 경찰이 거리를 배회하는 흑인 남자들을 불러 세워 신분증을 확인하고, 사소한 잘못이 있으면 벌금을 부과하거나 감금하기도 한다(Cabezas 2009, 147). 히네테로들은 항상 어느 정도 수준에서 활동을 해야 쿠바 경찰이나 이웃으로부터 목인될 수 있는지를 항상 고민한다(Powell 2008, 182). 물론 아바나나 산티아고 데 쿠바(Santiago de Cuba)와 같이 대도시가 아닌 트리니다드와 같은 소규모의 도시에서는 경찰이나 관리들이 지역의 경제를 고려하여 그다지 심하게 단속을 하지 않아서 길거리에서 호객행위를 하는 히네테로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거리에서 활동하는 히네테로들이 점점 증가하는 현상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부 관리나 학자들은 히네테로들의 증가가 사회주의 이념과 체제를 훼손하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특히 히네테로들의 도움을 받아서 매춘을 하는 히네테라들이 다시 늘어나는 것은 물질에 대한 피상적인 욕구로 인한 가치관의 위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재활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Facio et al. 2004, 130; Stout 2008, 723). 실제로 1998년에 내무부에서는 ‘악습 작전’(Operativo Lacro)을 전개하여 관광지 주변에 특별 경찰을 동원하여 매춘부들을 몰아내려고 했다. 이렇게 해서 매춘부들이 활동 하던 여러 나이트클럽들이 문을 닫게 되었다. 경찰은 매춘부들을 체포하여 이들을 재활센터에 보내기도 했다. 심지어 2003년에는 카스트로가 매춘부나 포르노 제작과 관련된 모든 재산, 그리고 불법 디스코테크와 비디오 가게들을 압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Stout 2008, 725). 이런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히네테라들은 완전히 소멸되지 않는다. 게다가 히네테로들은 워낙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장소를 활용하여 활동하기 때문에 완전히 사라지게 하기 불가능한 실정이다. 한편으로는 히네테로들은 히네테라들과는 달리 쿠바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역할도 수행하기 때문에 엄격한 단속은 별로 실시되지 않는다.

히네테로의 문제는 이들의 각종 불법 혹은 탈법과 불공정한 행위로 인해

관광객에게 불신을 초래하기도 한다는 사실이다. 히네테로들의 행위 중에서 쿠바 당국이 가장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들이 관광객을 속여서 돈을 벌려고 시도하기 때문이다. 히네테로들은 단순히 관광객에게 정보나 재화와 용역을 제공해서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다. 종종 관광객에게 가짜 물건을 제공하기도 하고, 실제보다 훨씬 많은 요금을 요구하여 부당한 이익을 챙기며, 이중화폐 제도를 악용하여 관광객에게 실제보다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만든다. 가짜 물건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시가이다. 쿠바에서 생산한 시가는 매우 품질이 뛰어나고 가격도 저렴해서 흡연을 하는 관광객들이 많이 구입하는 상품이다. 그런데 거리에서 파는 시가는 국영상점에서 파는 시가에 비해 월등하게 싸다. 물론 국영 상점에서 판매하는 시가를 빼돌려서 시중에 유통시키는 경우도 일부 있지만, 거리에서 파는 거의 대부분의 시가는 진품이 아니다. 다만 포장지만 빼돌려서 외관만 진짜처럼 포장을 하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은 국영상점보다 훨씬싼 가격에 거리에서 시가를 산다. 나중에 진품이 아니라는 것을 관광객이 알아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은 없다. 관광객에게 실제보다 많은 요금을 부과하는 문제도 흔히 발생한다. 히네테로들은 관광객에게 택시나 식당 등을 연결시켜주면서 실제보다 높은 가격을 부르고, 나중에 주인으로부터 차액의 일부를 돌려받는다. 이렇다 보니 식당에서 관광객들이 지불하는 금액이 사람마다 다른 경우가 많다. 특히 개인 식당이나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는 불법 식당에서 이런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트리니닷의 개인 식당에서 바다가 재 요리를 25달러에 먹는 관광객도 있지만, 5달러에 먹는 사람도 있다. 당연히 관광객에게 높은 가격을 요구했을 때 히네테로에게 돌아오는 돈도 많아진다. 이런 사실이 관광객에게 조금씩 퍼지면서 관광객들이나 쿠바인들이 히네테로들을 부정적으로 인식한다. 과거에는 상점에서 물건을 살 때에도 이런 문제가 종종 있었지만 이제는 상점이 많아지면서 이런 일이 줄어들었다.

히네테로들은 관광객들이 쿠바의 이중화폐 제도에 익숙하지 않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이익을 챙기기도 한다. 이중화폐 제도는 대다수의 관광객들에게 익숙하지 않고 혼란스럽다. 그러나 쿠바정부는 관광객들에게 이런 화폐제도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다.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홍보도 전혀 하지 않아서 아무런 준비가 없이 오는 관광객들은 이중화폐 제도 자체를 잘 모르는 경우도 있다(McKenna 2011, 286-287). 실제로 물자가 부족한 쿠바에서는 관광객들이 물건을 살 수 있다는 사실에 만족하고 가격을

상세하게 검토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런 사실을 악용하여 일부의 쿠바인들은 관광객들과 거래를 할 때 일반 페소로 적힌 물건의 가격에 대해 태환 페소를 요구하기도 하고, 물건을 판매한 뒤에 거스름돈을 줄 때에 태환 페소 대신에 일반 페소를 관광객에게 주기도 한다. 태환 페소가 일반 페소보다 26배 정도의 가치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중화폐 제도를 악용하여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개별적으로 여행을 오는 사람들은 거의 자신들이 직접 정보를 습득해서 준비를 해오지만, 단체로 패키지를 통해 오는 사람들은 쿠바의 사정을 잘 알지 못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쿠바 정부도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특별한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히네테로의 특징과 변화

조사지의 히네테로들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히네테로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유사한 배경을 지니고 있다. 대부분 직업이 없거나 소득이 많지 않은 분야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 히네테로가 된다. 히네테로의 과거의 직업을 보면 불안정한 직업으로 여러 가지 일을 전전하는 경우가 많았다. 직업이 있어도 급료 이외의 소득을 얻기 어려운 경우에, 예를 들어 경비원, 청소원, 식당 조리사 등은 히네테로가 되는 것이 낫다. 히네테로가 속한 가구 대부분은 미국으로부터 송금 수입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태환 페소를 얻을 수 없다. 전반적으로 트리니닷에서 히네테로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직업이 없거나 낮은 급료로 인해 현재의 직업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또 관광객과 접촉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익히려고 하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이런 경우는 새로운 경험을 원하는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대체로 히네테로 가운데 쿠바 사회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트리니닷에서는 아바나나 산티아고 데 쿠바와 같이 경찰의 단속이 극심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히네테로들이 마음 놓고 활동을 할 수는 없다. 주로 중앙광장(plaza mayor)이나 세스페데스 공원(parque céspedes) 등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장소에는 경찰들이 수시로 순찰을 하기 때문에 히네테로들의 활동이 활발하지 못하다. 그래서 중앙광장 서쪽 지역에서 히네테로들이 많이 움직인다. 이런 사정 때문에 히네테로들이 관광객과 접촉하기가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 히네테로들은 직접 거리에 나가서 관광객을 만나기도 하고, 택시 운전사나 상점

직원, 민박의 주인 등을 통해서 서비스나 상품을 제공받기를 원하는 관광객을 만난다. 트리니닷에서도 히네테로들은 다양한 일에 종사하고 있다. 예를 들면 관광객에게 투어 소개 및 안내, 민박이나 개인 식당 소개, 살사 춤을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을 찾아내서 살사 댄스 강습소와 연결, 시가나 다양한 공예품 판매 및 소개, 피델 카스트로(Fidel Castro)나 체 게바라(Ernesto Che Guevara), 그리고 쿠바 혁명과 관련된 모자, 책, 티셔츠, 지폐 등 다양한 상품을 소개하거나 판매를 도와준다. 종종 매출도 알선하는 경우가 있으며 공산당 기관지인 그란마를 파는 사람도 있다. 트리니닷은 도시 자체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식민시대의 모습이 많이 남아있어서 히네테로들은 이점을 관광에 활용한다. 또 이 지역이 흑인들의 살사 춤이 유명해서 관광객들도 살사 춤에 관심이 높다는 것을 반영하여, 살사 춤 강습에 많은 관광객을 유도한다. 트리니닷의 민박이나 식당, 살사 강습소 등은 히네테로들의 도움이 없으면 운영이 곤란한 곳도 많다. 그만큼 이들의 역할이 지역의 관광산업에 중요하다. 특히 트리니닷에서는 히네테로들이 자전거나 택시, 마차(coche colonial) 투어도 알선한다. 자전거로 시내를 둘러보는 것은 5CUC를 받고 마차로 둘러보는 것은 거리에 따라 10-20CUC를 받는다. 택시는 방문하는 지역과 거리에 따라 요금이 달라진다. 히네테로들은 가능하면 특정한 관광객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여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려고 한다. 즉 히네테로들이 한 무리의 관광객과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면 신뢰가 쌓이고, 관광객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기 어려운 쿠바에서 쉽게 여행을 할 수 있어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기회가 발생한다. 히네테로들은 '돈이 되는 일은 무엇이든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불법 행위도 가끔 존재한다.

관광객이 히네테로를 이용하면 얻게 되는 장점은 보다 좋은 서비스를 빠른 시간에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히네테로들은 사회주의와 관료주의가 팽배한 쿠바 사회에서 관광객에게 다양한 편의와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쿠바의 삼점이나 여행사 직원, 식당의 종업원 등은 사회주의 체제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업무를 잘 처리한다고 해도 별다른 인센티브가 없어서 고객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또한 고객의 요구에 매우 느리게 반응한다. 그래서 관광객들의 불만이 많고 때로는 갈등을 빚기도 한다. 트리니닷에서 만난 한 네덜란드 관광객은 여행사 사무실에 들어가서 투어 상품을 구입하려 했으나 상담을 하는 데 30분 이상이 소요되었다고 한다. 직원이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고 매우 느리게 응답하며 불친절하다고 했다. 자신이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처음부터 직원이 바로 응대하지 않고 자신의 일을 하다가 한참 후에 상담을 시작했으며, 자신과 상담하는 중에도 사적인 전화를 수시로 하고, 심지어 대화 도중에 아무런 말도 없이 10여분 이상 나가 있다가 돌아오기도 했다고 한다. 다른 관광객들도 여러 가지로 불만을 제기했다. 상점에 고객이 가도 점원이 물건을 팔지 않거나 고객을 응대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약속도 잘 지키지 않아서 정해진 시간에 가도 필요한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한다. 예를 들면 버스를 구입하려고 문의하니 아침 9시에 오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10시가 훨씬 지나서 표를 파는 경우도 있다. 게다가 택시로 인근 지역 투어를 하려고 다음날 예약을 했으나 정해진 시간이 되어도 택시가 오지 않아서 투어를 할 수 없었던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히네테로들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상대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관광객들이 원하는 것을 바로 찾아준다. 그래서 쿠바의 사회주의에 익숙하지 않은 관광객들에게 히네테로들이 상당한 도움을 준다.

히네테로의 수는 정확하게 측정이 곤란하다. 거의 매일 히네테로로 활동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다른 직업이 있으면서 가끔 히네테로가 되는 사람도 많기 때문이다. 별다른 직업 없이 히네테로로 활동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택시 운전자, 여행사 직원, 상점 직원, 정부 관리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주기적으로 이런 일을 한다. 트리니다트의 히네테로들은 적어도 수백 명은 될 것이라고 추산한다. 히네테로의 성과 연령 분포를 보면 대부분이 남성이며, 비교적 젊은 20-30대가 주류를 이룬다. 그러나 요즘은 여성들도 참여하고 있다. 히네테로가 상대적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지만 가구당 히네테로의 수는 많지 않다. 평균적으로 1-2명에 불과하다. 아직은 일자리가 그다지 넉넉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이 참여하기는 곤란한 실정이다. 히네테로에 종사한 기간은 대체로 3-5년 정도가 많았고, 거의 10년 이하이다. 쿠바의 관광산업이 최근에 와서 두드러지게 성장하다 보니 히네테로들도 근래에 많이 등장하게 되었다. 나이가 들면 다른 사람들의 눈치가 보여서 히네테로로 일을 하기 곤란하고, 또 돈이 조금이라도 모이면 히네테로로 일을 계속하기보다 장사 등 소규모의 자영업이라도 시작하기를 원한다. 히네테로의 월 평균 소득은 매우 변화가 심하다고 한다. 관광객과의 접촉이 안정적이지 못해서 일정한 소득을 정기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 자신의 노력과 경험에 따라 1개월에 50-100CUC를 버는

것이 보통이다. 물론 이것보다 훨씬 많이 버는 히네테로들도 존재한다. 그렇지만 월급을 받는 쿠바인들보다는 월등하게 많은 수입이어서, 히네테로의 대부분이 자신들의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 관광객이 많이 오는 겨울이 돈을 벌기 쉽고, 그다음으로 여름도 괜찮은 편이라고 한다. 봄, 가을의 비수기에는 관광객을 보기 힘들어서 겨우 먹고 살 정도라고 한다.

히네테로의 수가 증가하고 활동 폭이 넓어지면서 히네테리스모의 유형이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히네테로들이 하는 일이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그러나 과거처럼 관광객을 수동적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객이 원하는 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서 대처한다. 예전에는 관광객이 특정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요청해도 그것을 구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면 그냥 없다고 하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제는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본다. 예를 들어 잘 알려지지 않은 장소를 방문하는 등 독특한 투어를 관광객이 원하면, 특정한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요청해서 개인 투어를 진행하게 만든다. 또 숙박이나 식사の場合에도 이제는 관광객의 선호도를 고려하여 비싸도 좋은 곳을 안내하면서 더 많은 수입을 올리려고 시도한다. 다시 말해 관광객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품질이 좋은 상품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즉 돈을 더 많이 벌기위해서는 히네테로 자신들이 더욱 노력을 기울여 관광객의 입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은 과거의 쿠바의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이다. 지금은 히네테로들도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과 경쟁관계에 놓여 있다. 예를 들어 식당 종업원, 여행사 직원, 호텔 직원들도 비공식적으로 관광객들과 접촉하여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고 돈을 받는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다른 직종의 사람들도 고객에게 필요한 물건을 사다 주거나 상품 구입을 알선해주고, 민박이나 개인 식당을 연결해준다. 심지어 관광객을 상대로 마차를 운행하는 사람도 다른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고 수입을 얻는다. 따라서 히네테로들은 보다 전문적인 자신들만의 지식과 정보를 마련해서 경쟁에서 앞서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히네테로들은 정부의 감시를 받고 있어서 상호간의 네트워크를 활성화시켜서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노력한다. 현실적인 문제로 공식적인 네트워크는 없지만 비공식적으로 서로 잘 알아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고 한다. 경찰의 단속이나 이웃주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을 고려해서 필요한 정보를 수시로

교환할 필요가 있어서 서로 도우면서 생활한다. 결국 서로의 처지를 잘 알고 있어 지나친 경쟁을 피하려고 한다. 이들의 네트워크는 히네테로와 관광객의 문화소통에도 중요하다. 히네테로들은 관광객과 상대하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문화적 차이에 관한 정보와 대처 방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한다. 이런 과정에서 히네테로들은 관광객들과 상대하면서 쿠바 사회와는 상이한 다른 사회의 관념과 행위를 관찰하고 이해하게 된다. 특히 히네테로들은 서구에서 온 관광객들이 발전된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친절한 서비스를 요구하고, 약속을 매우 잘 지킨다고 생각하며, 이런 점은 쿠바 사회가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 한편, 히네테로들을 통해서 관광객들이 쿠바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관광객들이 살사 춤을 배우고 쿠바의 음식이나 음악 등을 즐기면서 쿠바 사회를 알게 되고, 에르네스토 체 게바라에 대해 자세하게 배우면서 쿠바혁명에 관심을 갖게 된다. 이렇게 되면서 장기적으로 쿠바 사회에 대한 동정적인 여론을 국제사회에 확산시킬 수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히네테로들은 쿠바의 문화를 관광객에게 전달하면서 자부심을 느끼게 된다.

대부분의 히네테로들은 직업이 없거나 기존의 직업으로는 생계를 해결하기에 충분하지 않아서 일을 시작한다. 그래서 돈을 모아서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그러나 일부의 히네테로들은 일을 하면서 모은 돈과 자신들의 경험, 인맥 등을 활용하여 자신만의 자영업에 계획한다. 히네테로들은 어느 정도 돈을 벌어 자금을 마련한 다음에 소규모의 자영업에 종사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미 이들은 관광객을 접해본 경험이 많아서 관광객을 상대로 장사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아직 트리니다에서 히네테로로 활동을 하다가 개인 식당을 열거나 관광객을 상대하는 큰 상점을 연 사람은 없다. 그러나 히네테로들은 돈을 좀 모으면 빵, 디저트, 치즈, 과일 등을 판매하는 행상을 하다가 자신만의 작은 가게를 열기를 희망한다. 최근에는 개인이 운영하는 가게인 ‘푼토 데 벤타’(punto de venta)가 많아졌는데 히네테로들도 이런 가게를 운영하기를 선호한다. 이런 가게들은 매우 영세하기 때문에 5%의 세금만 내면 된다. 다른 사업체들은 매달 10%의 세금을 내고 연말에 25%의 세금을 더 낸다. 물론 세금을 제대로 다 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자영업자들은 소득을 신고해서 세금을 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소득을 낮추어서 신고한다. 푼토 데 벤타는 신청한다고 다 허가를 받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 영향력이 매우 중요해서 주로 공산당 관리들과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히네테로들도 관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를 쓴다. 자영업의 경우에는 보통 불법 개인 식당을 운영하다가 돈을 좀 번 다음에 공식 개인 식당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고 그 다음에는 정식 식당으로 바뀌기도 한다. 이런 것을 감안하면 히네테로들도 일단 어느 정도의 자금을 확보하면 충분히 자영업자로 성공할 가능성은 있다.

인종차별과 히네테로

히네테로들은 대부분이 흑인이거나 몰라토이다. 백인들에 비해 이들은 빈곤한 계층에 속해 있는 경우가 많아서 히네테로가 되려는 사람들이 많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쿠바의 흑인들은 백인들에 비해 빈곤으로 인해 훨씬 경제적으로 고통을 많이 받는다. 쿠바가 공식적으로는 종족 문제에 있어서 평등한 사회라고 주장하지만, 아직 다양한 형태의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 차별이 존재한다. 이런 실정에서 사회적 연결망이 백인들에 비해 불리한 흑인들은 좋은 직업을 갖기 어렵고, 친척 중에 미국 등 해외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송금 수입도 매우 미약하다. 미국의 쿠바인 사회는 백인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2000년 아바나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백인 가구의 44%가 송금 수입이 있었는데, 흑인 가구는 23%만 송금을 받아들이고 있었다(De la Fuente 2011, 32). 최근에도 송금의 중요성은 크다. 2008년에는 전체 인구의 약 60%가 송금수입을 얻는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송금을 받는 백인의 비율이 더욱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흑인들은 더욱 불리하다(González-Corzo and Larson 2008, 293). 2006년에 피델 카스트로가 정권을 자신의 형제인 라울 카스트로(Raúl Castro)에게 넘겨준 뒤에도 해외의 송금을 쉽게 많이 받아들이기 위한 정책이 계속 추진되었다(Eckstein 2010, 1047). 이제는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어서 과거처럼 고등 교육을 받는다고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1990년대 이후에 쿠바인들은 잘 살려면 교육이나 혁명 조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해외의 가족을 의미하는 ‘페’(fe: familia en el extranjero)가 필요하다고 말한다(De la Fuente 2008, 714).

2002년 인구센서스의 결과를 보면, 1981년과 2002년 사이에 백인과 흑인의 혼혈인 몰라토의 비율은 22%에서 25%로 증가했다. 반면에 흑인들의 비율은 12%에서 10%로, 백인들의 비율은 66%에서 65%로 조금 감소했다(De la Fuente 2011, 31). 이런 인구구성에도 불구하고 히네테로는 몰라토이거나 흑인

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백인들 중에 히네테로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고, 최근에는 백인들 중에도 히네테로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흑인들이 히네테로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이유에 대해 흑인들은 자신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심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쿠바 사회에서는 인종 민주주의라고 해서 인종차별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지만 실제로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차별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혁명 이후에 쿠바 정부는 인종 차별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인종이나 인종차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쿠바가 인종과 피부색에 의한 차별이 불법이라고 헌법에 명시하고 흑인들에게도 평등한 교육과 고용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서반구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정책을 펴지만, 아직도 쿠바 사회에서는 구조적인 측면이나 사회문화적 생활에서 인종차별이 완전하고 적절하게 해결되지는 않았다. 예를 들어 백인들은 “모든 흑인들이 도둑은 아니지만, 모든 도둑은 흑인이다”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고 다닌다(Sanchez and Adams 2008, 34). 사회적으로 ‘좋은 풍채’(buena presencia)라는 의미도 흑인이 아닌 백인의 특성을 의미한다(Cabezas 2009, 79-80). 쿠바에서 인종에 따른 불평등은 1990년대 이후에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면서 심해지고 있다. 일련의 지식인들과 배우, 음악가, 작가, 영화제작자들이 인종차별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촉구하고 나서기도 했다(De la Fuente 2011, 30).

흑인들은 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갖기도 어렵고, 설사 일자리를 차지해도 백인들의 텃세에 견디기 어렵다. 자영업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일정한 규모의 자본이 필요하고, 사회적, 정치적으로 연결망을 잘 유지하고 있어야 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흑인들이 절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자영업에 발을 들여 놓기가 대단히 어렵다. 2000년의 자료를 보면 흑인과 몰라토들은 국가가 고용하는 직업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 당시에 약 70%의 백인들이 국가에 의해 고용되어 있지만, 몰라토는 81%, 흑인은 84%가 국가 부문에 생계를 의지하고 있다. 반면에 자영업에 취업한 백인들의 비율은 몰라토나 흑인들보다 3배 이상 많다. 국가에서 고용하는 경우에는 직업에 따른 임금차이가 거의 없거나 적고, 보수 수준도 자영업이나 관광업, 외국인과의 합작투자 사업 분야의 수입보다 현저하게 낮다(De la Fuente 2011, 32). 자영업 이외에 상대적으로 고소득을 올릴 기회가 많은 관광업과 해외자본과의 합작 투자도 거의 백인들이 차지하고 있다. ‘쿠바 인류학 센터’(Centro

de Antropología de Cuba)가 조사한 내용을 보면 흑인의 5%만 관광업 등 달러를 벌 수 있는 분야에서 일을 한다(De la Fuente 2008, 715). 흑인들은 거의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빈곤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개인 식당이나 민박을 할 기회도 매우 제한되어 있다. 2005년에 아바나와 산티아고 데 쿠바, 산타 클라라(Santa Clara) 지역의 조사결과를 보면 백인의 58%만 혼잡하고 낡은 주거지역에 사는 것에 비해 흑인의 98%, 물라토의 69%가 이런 지역에서 생활한다. 흑인들 중에는 단지 4%의 사람들만 자신들의 대지 위에 독립 주택을 갖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흑인들이 관광객을 끌여오기는 불가능하고 자신들의 사업을 펼칠 기회를 갖기도 어렵다(De la Fuente 2011, 32; Fernandes 2003, 361). 트리니다의 사례를 보면 현재 민박집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현재 약 1천여 개의 민박집이 있다고 한다. 실제로 중심지역은 한 집 건너 민박이 존재한다. 중심지에 위치한 민박들은 하루 숙박료로 30 CUC를 받고, 외곽으로 나가면 20-25 CUC를 받는다. 민박을 하려면 집의 시설이나 상태가 양호해야 하고, 또 위치가 관광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관광객의 접근이 용이한 중심지역은 주택 가격도 매우 비싸다. 현재 중심지 부근의 주택 가격은 약 미화 10만 달러 정도 한다. 쿠바의 생활수준을 고려하면 상당히 비싼 편이다. 이런 주택에 흑인이 거주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흑인들은 국가에 고용되면 한 달에 약 20달러나 그 이하를 받는 경우가 많지만, 히네테로가 되면 관광객을 한 번 도와주거나, 그들을 해변에 차로 태워다 주거나, 아니면 시가 한 상자를 팔면 40달러에서 80달러도 벌 수 있다(Fernandes 2003, 366). 한편으로는 흑인이 히네테로가 되기에 유리한 사회문화적 조건도 존재한다. 실제로 관광객들은 흑인들이 쿠바의 음악, 춤, 산테리아 같은 종교 등의 분야에 있어서 매우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이런 흑인들의 문화가 진정한 쿠바의 문화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Cabezas 2009, 99). 이렇게 히네테리스모는 흑인들의 일상적인 생활과 문화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흑인들의 대중문화인 랩에서도 이런 히네테로 들의 행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도 존재한다(Fernandes 2003, 373).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흑인 히네테로들이 과거보다 용이하게 관광객들과 쉽게 접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

히네테로의 사회문화적 영향

관광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쿠바 사회에서 히네테로들은 예상치 못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히네테로가 긍정적인 혹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Colantonio 2004, 33). 히네테로들의 활동이 불법이지만 사람들이 이들을 관계당국에 신고하는 것을 꺼리거나 묵인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이들에 대해 상당히 다양한 견해를 갖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현재 쿠바인들의 히네테로에 대한 생각은 최근 십여 년 사이에 상당한 변화를 겪었다. 과거에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지만 지금은 이중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이 더욱 많다. 히네테로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히네테로의 긍정적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제적 기회의 증가, 생활여건의 개선과 사회발전의 촉진, 사회적 다양성의 확대, 사회적 불평등의 부분적 해소, 새로운 가치관과 세계관의 유입을 들 수 있다. 히네테로의 존재에 우호적인 사람들은 주로 젊은 사람들이나 흑인, 몰라토, 그리고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나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반면에 사람들이 인식하는 히네테로의 부정적 영향은 부정부패와 편법의 확산, 서구문화의 무분별한 유입, 물질 만능주의, 사회주의 이념의 훼손 등이 대표적이다. 히네테로에 거부감을 보이는 사람들은 주로 나이 든 사람이나 백인, 소득이 높고 안정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공유한다. 사회주의에 대한 자부심과 관심이 높은 특징이 있다.

긍정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경제 활성화를 들 수 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식당, 상점, 호텔 등만 있다면 관광객이 많아도 일반 쿠바인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거의 없다. 그러나 히네테로들이 존재하면서 민박이나 개인 식당, 그 밖의 소규모 자영업도 생존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히네테로들이 쿠바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에 부분적으로 기여한다. 히네테로들이 관광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이들이 다양한 경제활동을 하면서 경제적 기회가 증가하고 전반적으로 생활여건의 개선과 사회발전의 촉진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사회적 다양성과 사회적 불평등의 해소에도 히네테로들이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다. 흑인들은 실제적으로 좋은 직업을 갖기 쉽지 않으며 실업률도 백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이런 실정에서 히네테리스모는 흑인들에게 새로운 자리를 마련해주고, 이들이 사회적으로 활동할 공간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하면서 쿠바 사회가 훨씬 다양한 사회로 변화해 갈 수

있다. 한편 히네테로들이 많은 수입을 올리면서 백인과 흑인 사이의 사회적 불평등도 부분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 물론 아직도 수입이 많은 관광 분야에는 백인들의 비중이 높다. 그렇지만 흑인들이 그나마 히네테로로 활동을 하면서 흑인들의 경제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히네테로들의 보다 중요한 기여는 새로운 세계관과 가치관의 유입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에서 별 도움을 받지 못하는 히네테로들은 생존을 위해 능동적, 창의적, 적극적, 주체적으로 활동할 필요가 있다. 호객행위를 위해 고객이 될 만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접근해서 끈질기게 강요한다. 이런 현상은 기존의 사회주의식 행동 방식과는 다른 행위이다. 이와 더불어 관광객들과 교류하면서 새로운 가치관과 문화를 습득한다. 이렇게 되면서 이들은 자연스럽게 문화중개자(cultural broker)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히네테로의 부정적 영향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부정부패와 편법의 확산이다. 히네테로들은 다른 쿠바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활동하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 불법이나 위법 행위에 가담하는 경우도 많다. 대표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국가가 공급하는 물건을 몰래 빼돌려서 관광객에게 팔거나 가짜 물건을 진짜라고 속이고 관광객에게 비싸게 파는 경우가 많다. 때로는 이 두 가지를 결합시켜서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국영 시가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동료 직원과 공모하여 유명 시가 상표의 시가 밴드를 빼돌린다. 그런 다음에 이것을 시중에 유통시켜서 보통의 시가에 밴드를 부착하여 마치 진품인 것처럼 관광객에게 고가에 판매한다. 이런 과정에서 히네테로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한다(Sanchez and Adams 2008, 36). 트리니다드에서도 이런 일은 비밀비재하다.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히네테로들의 부정부패가 심해질수록 정부 관리들의 부정부패도 덩달아 증가하는 실정이다. 관리들은 부정을 눈감아 주는 조건으로 뇌물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히네테로들이 관광객에 따라 상이한 가격을 요구하는 불공정 행위나, 속임수를 이용한 부당한 이익을 추가하면서, 쿠바인들은 이들을 불법 행위를 일삼는 비도덕적 사람이나 사회 안정을 저해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다음으로 경제적 불평등의 확대와 물질 만능주의의 확산이 문제가 된다. 관광업과 히네테로들이 증가하면서 과거에는 백인과 흑인들의 경제적 불평등이 주요한 문제였는데, 이제는 흑인들 사이에도 경제적 차이가 조금씩 벌어지고 있다. 물론 히네테로들이 택시 운수업, 개인 식당, 민박, 관광객 대상의 시가

판매점 등을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에 비해 많은 돈을 버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실업 상태에 있거나 국가 부문에 생계를 의지하는 흑인들에 비하면 히네테로들의 수입이 훨씬 많아지면서 흑인들 사이에 새로운 긴장과 갈등이 조성되어 흑인 사회의 조화를 깨드릴 수 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더욱 많은 흑인들이 히네테로가 되기를 원할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이 닥칠 수 있다.

쿠바인들은 장기적으로 히네테로의 증가가 서구문화의 무분별한 유입으로 사회주의 이념이 훼손될 것을 우려한다. 히네테로들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도 많이 하고, 또 이들이 지나치게 관광객에게 의존하면서 일부의 쿠바인들은 이들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다. 사람들은 히네테로들이 많이 활동하면 할수록 관광객들이 쿠바의 사회주의를 부정적으로 인식할 것이라는 견해에서 이들을 수치스러운 존재로 보기도 한다. 즉, 쿠바 사회의 현실이 외부에 확산되면서 쿠바인들의 자긍심이 훼손된다는 생각이다. 또 가끔 히네테로들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지나치게 저자세를 보여 사회주의 국가의 위신이 크게 손상된다는 것이다. 이런 일이 지속되면 결국 사회주의의 체제와 이념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한다. 특히 생활에 필요한 물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쿠바 사회에서 관광객에게 팔기 위한 다양한 품질 좋은 상품이 대거 수입되면서, 가난한 쿠바인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매우 높다. 또 관광객에게 사실상 구걸을 하는 히네테로도 생기면서 일부의 쿠바인들은 모욕감을 경험하기도 한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사회주의를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부정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날 것을 걱정하는 사람도 있다.

결 론

쿠바 사회 내에서 부족한 경제적 자원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나타나는 히네테리스모는 쿠바의 관광정책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사회주의 체제를 지속하고 있는 쿠바에서도 많은 쿠바인들이 단순히 수동적으로 현재의 국가의 관광정책에 대응하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 일부의 쿠바인들은 더 큰 위협을 감수하면서 자신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탈피하려고 노력한다. 히네테리스모는 쿠바 사회의 낮은 임금, 일자리 부족, 관광객의

증가 때문에 가난한 쿠바인들이 불가피하게 선택한 경제적 전략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극심한 일자리 부족과 낮은 급료로 고통을 받고 있는 쿠바 사회에서 히네테로의 증가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히네테로의 수가 많아지고 하는 일도 다양해지면 쿠바 사회로서는 앞으로 변화를 겪게 될 수도 있다. 즉 히네테리스토의 영향이 계속 축적되면 장기적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 먼저 경제적으로 기업가 정신, 다양한 관광 관련 경제활동 기회의 확산이 가능해질 것이다. 아직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일부의 히네테로들이 자영업자로 발전하는 과정도 확인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폐쇄적인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히네테리스토는 자연스럽게 기업가(entrepreneur) 혹은 혁신가(innovator)를 배출하게 만들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접합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존재한다. 특히 히네테로의 활발한 활동에 힘입어 점차 규모가 커져가는 자영업과 일부의 지하 경제행위는 쿠바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요한 자산이 될 수도 있다(Henken 2005, 361).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사회주의 국가인 쿠바에서 히네테리스토는 새로운 세계관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쿠바 사회에서는 아직까지 국가나 사회의 통제가 엄격하게 이루어져 있어서 사회문화적 동질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런 실정에서 개인들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질서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사회체제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그러나 히네테로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외국에서 온 관광객들을 적극적 혹은 능동적으로 상대하고, 이에 따라서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문화교류가 발생한다. 경우에 따라서 히네테로들은 창의적이거나 주체적 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생활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한다. 즉, 더 이상 국가에 자신들의 생계를 의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해 자신들의 생계를 직접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이다. 물론 히네테로들의 호객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이고 기존의 사회질서를 위협한다는 부정적인 면이 존재하지만, 이들이 관광객과 쿠바인들 사이에서 의미 있는 ‘문화적 중개자’의 역할을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결국 히네테로들은 폐쇄된 사회에서 새로운 것을 학습하면서 사회변화를 도모하는 한편, 관광객에게도 쿠바의 흑인 혹은 물라토 문화, 살사, 산테리아 등을 전수하여 쿠바사회에서 문화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히네테로들은 자신들의 문화를 재평가하면서 문화적 자부심을 찾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아직까지 히네테로들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다. 공식적인 사회적 지위가 주어지지 않아서 사회에 적극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는 곤란하다, 그러나 쿠바 사회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확산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한다. 히네테로의 등장으로 사람들은 쿠바라는 폐쇄적 환경에서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에 적극적 관심을 갖게 되었다. 관광객과 접촉할 기회가 늘어나면서 이제는 텔레비전에서 다른 나라 문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게 된다. 장기적으로 이런 변화는 쿠바 사회를 개방시키는 데에 무시하지 못할 역할을 할 것이다. 히네테로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향후에 발생할 쿠바의 경제정책의 변화를 기대하면서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를 하면 언젠가 쿠바 사회가 개방되었을 때 보다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히네테리스모가 특히 의미가 있는 것은 사회경제적, 정치적으로 열악한 지위를 차지하는 흑인들이나 몰라토들에게 조금이나마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흑인이나 몰라토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준다.

물론 관광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히네테리스모가 쿠바에서 확산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고, 히네테로들이 활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문제도 존재한다. 먼저 국가에 의해 고용되어 일반 폐소를 버는 사람들과 관광객을 상대로 달러나 태환 폐소를 버는 사람들 사이에 생활방식과 소득에서 뚜렷한 격차가 발생하면서 사회갈등이 증가할 수도 있다(Facio et al. 2004, 135). 다음으로 히네테리스모의 확산은 필연적으로 불법 경제행위가 만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국가가 개인들의 행위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고, 국민들에게 사회주의 이념을 심어주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Sanchez and Adams 2008, 38). 이런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속되면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이 수반될 수 있다. 위와 같은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하느냐에 쿠바 사회의 미래가 달려 있다.

참고문헌

- Brotherton, P. Sean(2008), “‘We Have to Think like Capitalists but Continue Being Socialists’: Medicalized Subjectivities, Emergent Capital, and Socialist Entrepreneurs in Post-Soviet Cuba,” *American Ethnologist*, Vol. 35, No. 2, pp. 259-274.
- Cabezas, Amalia L.(1998), “Discourses of Prostitution: The Case of Cuba,” in K. Kempadoo and J. Doezema(eds.), *Global Sex Workers: Rights, Resistance and Redefinition*, New York: Routledge, pp. 79-86.
- _____(2004), “Between Love and Money: Sex Tourism, and Citizens in Cuba and the Dominican Republic,” *Signs: Journal of Women in Culture and Society*, Vol. 29, pp. 987-1012.
- _____(2006), “The Eroticization of Labor in Cuba’s All-Inclusive Resorts: Performing Race, Class, and Gender in the New Tourist Economy,” *Social Identities*, Vol. 12, No. 5, pp. 507-521.
- _____(2009), *Economies of Desire: Sex and Tourism in Cuba and the Dominican Republic*,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 Colantonio, Andrea(2004), “Tourism in Havana during the Special Period: Impacts, Residents’ Perceptions, and Planning Issues,” *Cuba in Transition*, Vol. 14, pp. 20-42.
- De la Fuente, Alejandro(2008), “The New Afro-Cuban Cultural Movement and the Debate on Race in Contemporary Cuba,”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Vol. 40, No. 4, pp. 697-720.
- _____(2011), “Race and Income Inequality in Contemporary Cuba,” *NACLA: Report on the Americas*, Vol. 44, No. 4, pp. 30-33.
- Domínguez, María Isabel(2009), “Cuban Social Policy: Principal Spheres and Targeted Social Groups,” *Latin American Perspectives*, Vol. 36, No. 2, pp. 81-94.
- Eckstein, Susan(2010), “Remittances and Their Unintended Consequences in Cuba,” *World Development*, Vol. 38, No. 7, pp. 1047-1055.
- Elizalde, Rosa Miriam(1996), *Flores Desechables: ¿Prostitución en Cuba?*, La Habana: Editorial Abril.
- Espina Prieto, Mayra(2011), “Changes in the Economic Model and Social Policies in Cuba,” *NACLA: Report on the Americas*, Vol. 44, No. 4, pp. 13-15.
- Facio, Elisa, Maura Toro-Morn, and Anne R. Roschelle(2004), “Tourism, Gender, and Globalization: Tourism in Cuba during the Special Period,” *Transnational Law & Contemporary Problems*, Vol. 14, No. 1, pp. 119-142.
- Fernandes, Sujatha(2003), “Island Paradise, Revolutionary Utopia or Hustler’s Haven? Consumerism and Socialism in Contemporary Cuban Rap,” *Journal of Latin American Cultural Studies*, Vol. 12, No. 3, pp. 359-375.
- Fernandez, Nadine(1996), “The Color of Love: Young Interracial Couples in Cuba,”

- Latin American Perspectives*, Vol. 23, No. 1, pp. 99-117.
- Fusco, Coco(1998), "Hustling for Dollars: Jineterismo in Cuba," in K. Kempadoo and J. Doezema(eds.), *Global Sexworkers: Rights, Resistance, and Redefinition*, New York: Routledge, pp. 151-166.
- González-Corzo, Mario A. and Scott Larson(2008), "Survey of Cuban Remittance Forwarding Agencies in the United States: Preliminary Findings," *Cuba in Transition*, Vol. 18, pp. 293-299.
- Henken, Ted(2001), "An Analysis of Decree-Law No. 171 on Private Home Rental," *Cuba in Transition*, Vol. 11, pp. 372-378.
- (2005), "Entrepreneurship, Informality, and the Second Economy: Cuba's Underground Economy in Comparative Perspective," *Cuba in Transition*, Vol. 15, pp. 360-375.
- Kempadoo, Kamala(1999), "Continuities and Change: Five Centuries of Prostitution in the Caribbean," in K. Kempadoo(ed.), *Sun, Sex, and Gold: Tourism and Sex Work in the Caribbean*, Lanham: Rowman & Littlefield, pp. 3-36.
- López Segrera, Francisco(2011), "The Cuban Revolution: Historical Roots, Current Situation, Scenarios, and Alternatives," *Latin American Perspectives*, Vol. 38, No. 2, pp. 3-30.
- McKenna, Erin Flynn(2011), "Cuba's Capitalism: Tourists' Experiences with the Cuban Economy," *Cuba in Transition*, Vol. 21, pp. 283-291.
- Melián, Juan A.(2006), "Tourism in Cuba during the Twentieth Century: Past Strategies, Current Trends and Future Projection," M.S. Thesis, Central Connecticut University.
- Mesa-Lago, Carmelo(2005), "Social and Economic Problems in Cuba: During the Crisis and Subsequent Recovery," *CEPAL Review*, Vol. 86, pp. 177-199.
- Mesa-Lago, Carmelo and Pavel Vidal-Alejandro(2010), "The Impact of the Global Crisis on Cuba's Economy and Social Welfare?,"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Vol. 42, No. 4, pp. 689-717.
- O'Connell Davidson, Julia(1996), "Sex Tourism in Cuba," *Race and Class*, Vol. 38, No. 1, pp. 39-48.
- Orozco, Manuel and Katrin Hansing(2011), "Remittance Recipients and the Present and Future of Micro-Entrepreneurship Activities in Cuba," *Cuba in Transition*, Vol. 21, pp. 302-308.
- Pertierra, Anna Cristina(2008), "En Casa: Women and Household in Post-Soviet Cuba,"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Vol. 40, No. 4, pp. 743-767.
- Pope, Cynthia.(2005), "The Political Economy of Desire: Geographies of Female Sex Work in Havana, Cuba," *Journal of International Women's Studies*, Vol. 6, No. 2, pp. 99-118.
- Powell, Kathy(2008), "Neoliberalism, the Special Period and Solidarity in Cuba," *Critique of Anthropology*, Vol. 28, No. 2, pp. 177-197.
- Pujol, Joaquin P.(2013), "Where Is Cuba Going? Economic Policies That Have

- Been Adopted And Results Thus Far,” *Cuba in Transition*, Vol. 13, pp. 77-98.
- Ritter, Archibald(2005), “Survival Strategies and Economic Illegalities in Cuba,” *Cuba in Transition*, Vol. 15, pp. 342-359.
- Ross, James E. and María Antonia Fernández Mayo(2002), “Overview of Cuba’s Dollar Food Market: An Exploration of the Purchasing and Distribution System,” *Cuba in Transition*, Vol. 12, pp. 276-284.
- Rundle, Mette Louise B.(2001), “Tourism, Social Change, and Jineterismo in Contemporary Cuba,” The Society for Caribbean Studies Annual Conference Papers, pp. 1-12.
- Safa, Helen(2009), “Hierarchies and Household Change in Postrevolutionary Cuba,” *Latin American Perspectives*, Vol. 36, No. 1, pp. 42-52.
- Sanchez, Peter M. and Kathleen M. Adams(2008), “The Janus-Faced Character of Tourism in Cuba,”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 35, No. 1, pp. 27-46.
- Smith, Benjamin(1999), “The Self-Employed in Cuba: A Street Level View,” *Cuba in Transition*, Vol. 9, pp. 49-59.
- Stout, Noelle M.(2008), “Feminists, Queers and Critics: Debating the Cuban Sex Trade,”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Vol. 40, No. 4, pp. 721-742.
- Strout, Jan(1996), “Women, the Politics of Sexuality, and Cuba’s Economic Crisis,” *Socialist Review*, Vol. 25, pp. 5-15.
- Trumbull, Charles(2001), “Prostitution and Sex Tourism in Cuba,” *Cuba in Transition*, Vol. 11, pp. 356-371.
- Vallant, Armando(2001), “I am not a Jinetero,” *Qualitative Studies in Education*, Vol. 14, No. 2, pp. 239-254.

Article Received: 2014. 10. 01
Revised: 2014. 11. 13
Accepted: 2014. 11. 14